

**시 강우인**

### 운동화

현관에 소리 없이 앉아  
10년을 하루같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운동화  
오늘도 묵묵히  
긴 목을 빼고 있다

갑작스런 하늘의 부르심에  
맨발로 따라나선 길  
그 길에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이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 떠난 사람

속절없는 날들을  
동반자가 되어  
버텨왔으며  
파수꾼으로

그대 없는 빈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고마운 운동화

**약력**

- ▲문학춘추 시부문 신인상
- ▲제7회 우송문학상 수상
- ▲은목문화회 회장, 우송문학 이사
- ▲시집 : '나비의 봄날' 1,2집



**시 이태웅**

### 낙엽송(頌)

소나기 치듯  
잎비로 내린 낙엽 위  
별빛이 차다

낙엽은 스산한 가을바람 켜며 찬 별 물고  
누구에게 가고 싶어  
저리 바빠 서둘러  
굴러가고 있을가

이밤  
한 잎 낙엽 되어  
별에게 길을 물으며  
은사시나무 같은 너에게  
가고 싶구나

찬 바람 쓸어 가듯  
맨 발로 달빛 밟으며  
낙엽 구르는 소리로

**약력**

- ▲'한국시' 등단(1990)
- ▲전남 예술상(문학), 전남문학상 수상
- ▲광주·전남 문협 공로상 수상
- ▲광주문협 시분과 위원장, 전남문협 수석부회장
- ▲대표저서 : 시간의 날개 공저, 광주문협 시분과 대표시선집 발행



**시조 전학춘**

### 귀성열차

애초 태어나 고향 하나 지키려 욕심 했다  
몸 자라고 물질 쌓이니 비바람들 침습했다  
정맞은 부피 채우려  
바깥세상 쏘다녔다

세상은 달리는 것  
탐나는 것 많고 많았다  
낮밤 새어 쓰다녀도 빈터 많고 지쳐갔다  
어느 날 귀성열차 기대어  
창밖 별들 세어 봤다.



**약력**

- ▲'현대시조' 등단
- ▲광주문학상 수상
- ▲시조시집 : '화려한 침묵', '동백의 해로', '직선적 발자국', '겨울 그리고 언', '떨리면 그냥 떠세요'
-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과 졸업(문학석사)



**수필 오희숙**

### 할머니의 신발

이웃집 할머니와는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깝게 살았다. 인터넷을 통해 살기 좋은 곳을 찾다가 우리 마을에 오신 분이요. 열려진 대문 사이로 토방의 많은 신발들을 보면서 왠지 든든했다. 저 신발들은 삶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며 뒤꿈치에 힘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뒤축이 닳아진 신발로 덜컹덜컹가는 낮과 밤을 건너 여기까지 걸어왔을 것이다. 막바지로 아픔을 몰아세운 걸음들이 어디 한둘이었을까. 진땀 나는 걸음을 풀어놓고 신발은 오랜만에 토방에서 쉬고 있는 듯했다. 신발을 보며 적어도 외로운 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할머니의 전화번호라도 알아두고 싶어 이웃집에 갔다. 할머니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경솔하고 단순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다. 이야기 도중에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 토방에 놓인 여러 컬러의 신발은 홀로 살아야 하는 할머니의 불안을 감추려는 의도였다고 했다. 그리고 보니 신발코가 방 쪽으로 모두 향해 있었다. 할머니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신발은 어떤 방향을 모색했던 것일까. 뒤축을 잡아먹는 길의 어둠처럼 신발은 낮았지만 불안이라는 빛이 잠복할 수 없도록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신발의 저 자세가 할머니의 평안을 지켜주고 안부와 안녕을 건네줄 것 같았다. 신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안'이라는 할머니의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생활했다. 건강하고 조용한 성품에 언제나 독서를 즐겼다. 닳고 싶은 분과 이웃이 되어 우린 금방 친해졌다. 커피를 준비해 놓고 전화를 하면 나는 전날 읽었던 책의 감동스런 대목을 들고 할머니에게 뛰어갔다. 차림이불 속에 발을 문고 조담조담 책을 읽어 드리면 할머니는 귀를 기울이며 들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고왔다. 교과서에 나왔던 의종은 형제처럼 우리는 돌담 너머로 갖은 음식들이 끼니때마다 오고 갔다.

언제부터인지 할머니의 속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왕래가 뜸해졌다. 죽이라도 쑤어다 드리면 조금씩이라도 드셨기에 염려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입 퇴원이 반복되었다. 자녀들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차도가 없었다. 그 무렵 나는 '이웃집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밤새 안녕이란 말을 절감하면서 갑자기 일어난,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할머니께 드릴 건 그것밖에 없었다. 그 글이 실린 책을 들고 병문안을 갔을 때가 잊혀지지 않는다. 벗겨처럼 아연 모습이었다. 벗길 같은 저 몸에 아직도 할머니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아련함이 있었는지 할머니의 눈빛은 맑았다. 한때 질주하는 청춘과 뜨겁게 달아오른 열정의 속도로 할머니는 아름다움을 꽃피웠을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생의 내리막길에서 아파하는 할머니의 시간이 가날 뜨게 떨고 있었다. 겨우 몸을 가누며 나를 반기던 할머니께 책을 안겨 드렸다. 물결하게 솟구치는 눈물을 감추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을 수도 없는 가늘픈 어깨와 맑디맑은 눈망울은 영원한 이별의 예고였을까. 며칠 후 장례식장에 갔다. 할머니 댁 문지방 위에 걸려 있던 사진이 장례식장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그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장례가 끝난 어느 봄날이었다. 굳게 닫혀 있던 할머니 댁의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자녀들이 집을 손질하기 위해, 의정부 안산 전주 여수에서 모두 내려와 있었다. 조용하기만 했던 집안에 훈훈한 수다가 봄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풀밭이었던 화단에 깔끔한 옛 모습으로 돌아왔다.

자식들이 떠난 할머니의 빈집을 둘러본다.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어서 와요" 하며 할머니가 나올 것만 같은데 기척이 없다. 할머니가 심어 놓은 어떤 식물의 줄기에 터질 듯한 꽃들이 방울처럼 달려 있다. 토방에 놓인 신발처럼 단정하게 피어 있는 꽃은 할머니의 청춘을 끌어온 듯 화사하다. 꽃은 뒤축이 닳은 할머니의 뒤안길을 꽃색으로 다시 덮으며

추억하고 있는 듯 어여쁘다. 방울방울 달린 꽃들이 햇살에 눈시울을 적시며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반가운 할머니의 체취처럼 향기가 허공을 파고든다. 또 화단 한켠에는 철쭉꽃이 할머니의 환생처럼 피어나고 있다.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방 쪽으로 향해 있는 신발코처럼 철쭉꽃은 정오를 향해 꽃잎을 열고 있다. 꽃빛에 귀 기울이면 두박두박 걸어오는 할머니를 만날 것만 같다. 생전에 꽃을 좋아했으니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바라보았을 꽃들이다. "어서 와요" 하며 봄꽃들이 할머니처럼 나를 반겨주고 있다.

**약력**

- ▲치유문학상 동시 최우수상, 서울 지하철 문학상 수상
- ▲평택사랑 전국 백일장 수필부문 수상
- ▲산해정문학상, 신정문학상 수상
- ▲한신문예창작 회원, 향근문학회 회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